

2학년 4반 월 독서토론

조이름 :

조원 : 20406 문예지, 20412 은송희, 20413 이승희, 20416 이은송, 20419 정예진

도서명	뉴욕에서 간호사로 살아가기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p>나의 취미인 공이 이 책의 제목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었고, 미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어떤 생활을 할지 궁금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p>	
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	
<p>이은송 -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돌이켜보면 어둠과 두려움이 몰리면 회복이 생기고, 집단이기주의가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 미국에 온다고 해서 중대한 자료가 당신을 행복하게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인데 그 이유는 나도 미국 간호사가 되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막상 생각해보면 미국은 자영업과 근무환경도 꽤나 힘들고 차별도 많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만두었어서 내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 인상 깊었다.</p>	
<p>이승희 - 미국에서의 간호사 생활을 꿈꾸는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간호사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도전해보라는 구절이었다.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원정으로 돌아오게 되니 도전 해볼라는 말이였다.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었다.</p>	
<p>정예진 -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그곳에 अपनी 한자들이 다양한 간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콜라겐 빛으로 계속적으로 돈도라는 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 두 번째로는 뉴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법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p>	
<p>문예지 -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이 분이 뉴욕에 있었을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한식이라는 것이었다. 한식은 절대 포기 안되는 음식이구나' 깨달았다. 그리고 뉴욕에서 방종을 댔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방종에도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했다.</p>	
<p>은송희 -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뉴욕(미국)에는 마약중독자가 응급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알았던 것이었다. 한국은 마약 자체가 불법이지만 뉴욕(미국)은 합법이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너무 낯설었던 구절이었던 것 같다. 병원에서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범죄자, 마약중독자를 만난다면 흥분했을 것이다. 만약 나라면 하지만 글썽이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그들도 다시금 돌아와 준다고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나도 한번 그런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다.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든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며 읽었던 거 같다.</p>	

나의

도서 중 가장 와 닿지 않았던 부분(글쓰이의 생각과 달랐던 구절)과 그 이유

이승희 - 간호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하는 곳, 일과 여가의 균형이 갖는 곳, 이상과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간호사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하았는데,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적응하고 몇 년 뒤에 뉴욕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문동 - '나는 지극히 오늘에 시간을 낭진할수없어'라는 부분이 나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르긴 같은데 생각했다. 열심히 일할수록 일할 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인데 이 글의 글쓴이는 업무에 과도하게 압력을 느껴서 자기 삶을 지체롭게 느끼 못하는 것 같아 조금 불쌍했다.

문대지 - 나는 이 간호사가 너무 나와 사랑과 생각이 비슷해 솔직히 단 한 구절도 다 닿지 않았던 부분이 없다.

은송희 -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간호사로 부족하며 병원에서 문제만 요즘 왜 굳이 뉴욕까지 가서 간호사를 공부하지? 우리나라에서 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 뉴욕? 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책을 읽어나갔다. 이 책을 읽다 읽다 나의 궁금증은 풀렸다. 이 글쓴이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었고, 도전적인 사람이었다. 그 장간의 순간동안 한국간호사가 아닌 뉴욕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그에 충분한 시간을 내서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동기부여가 와닿게 되었다.

정예진 - 이 책에서 가장 다 닿지 않았던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약간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책의 작가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밖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도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후에 작가는 밖에서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탐색하는데 나 역시도 ^{많이, 밖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느낀 점

윤송희 -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이야기였다. 뉴욕 간호사의 파란만장한 취업이야기와 간호사의 성장이야기 한국에서가 아닌 뉴욕에서 간호사를 전문가로 인정받고 대우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하고 그에 알맞게 노력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찾을 수 있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나 이 책을 읽으면서든지 가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어느 나라든지 가서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새로운 간호사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

윤예지 - 나는 이 책을 보고 이 강태봉씨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고 견뎌내며, 자신의 꿈을 펼쳐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인상깊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전대기 어렵고 막막해도 내 진로나 꿈을 위해 견뎌내고 노력하며, 꿈을 펼쳐내고 살아가고 생각했다.

이은동 - 나는 내 진로로 간호사를 선택했고 간호사가 직업이 다양한곳에 진출이 쉽다는 점에 기반해 미국이나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는 것으로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 책을 읽고 무언가 환상같은게 느껴졌다. 그래도 내가 만약 미국이나 해외에서 직업을 구한다면 어떤 느낌인가, 나를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서 무언가 극대화 하나만 느끼게 되었다.

이승희 - 모든 직업들이 귀한 직업이지만 간호사도 정말 힘든 직업인거 같다. 서비스타 비슷하듯이, 환자가 간호사한테 불평 불만을 토해내도 듣고 있어야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자기가 뉴욕으로 가서 간호사를 하는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으며, 의지나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꿈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같다. 나도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룰 것이다.

정예진 -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 앞에서도 써듯이 나는 단지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국제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 같다. 또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살기도 힘들지만 인내심과 배려심 등 한자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라면 혼자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이 해보았는데, 어차피 둘 다 힘든거 한국에서 살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 같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간호사가 된다면 그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문태지: 이 책에서는 간혹 자신의 꿈을 안고 뉴욕으로 떠난다. 뉴욕에서 간혹 살면 여가생활도 좋고, 그에 맞게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마약중독자를 만나고, 인종차별 역시 겪지만, 이 분은 그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며, 힘든 상황을 포용하지 않고 극복해냈다. 나도 이 불치병, 힘든 상황에서 절대 포용하지 않고, 정리해야겠다.

정예진: 나의 희망적인 꿈이 미국 간혹사에서 이 책을 선정했다. 이 책에는 그곳에서 이용하고 싶은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나는 단지 간혹사라고 생각만 했지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본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니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는지 현실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단지 미국 간혹사에 대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 대우는 좋지만 풍양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아직 간혹사라기 전에 간혹사를 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국 간혹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윤송희: 간혹사에 대한 책을 읽고 나와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여 토론을 3번 하였는데 이번에 읽은 "뉴욕에서 간혹사로 살기" 라는 책을 읽고 간혹사는 어느 나라든 부족한 일꾼이거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간혹화풍을 한국에서만만이 아닌 각 나라에 모두 화풍하게 화풍하는 양을 보고 나도 꼭 한국에 서만 화풍 준비를 한정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파문나아가서 내가 화풍을 줄 수 있도록 영어를 공부하여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끼게 되거 같다.

이승희: 보통 간혹사 책들은 한국에서 보통 자기가 무슨무슨 일을 하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는데 이 책은 저자는 뉴욕으로 가서 간혹사를 하는 것이며 되게 신기해웠다. 인종차별도 겪었다고 해서 되게 맘이 아파왔다. 그렇게 의지가 있다는 게 대단했고, 나도 앞으로 더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민동: 앞으로 나의 꿈인 간혹사를 위해서 꼭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복시나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때 마르의 사회혁신이나 일부의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싶도록 멘탈관리 등 자존감을 높이고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만들 것이다.

조장이 하고 싶은 질문 & 총평

1. 간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작가가

2. 다른 나라에서 간헐사라는 일을 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3. 세이전시를 통해 미국 간헐사가 되는 것이 더 나은가?

4.

총평:

이 책에는 실제 뉴욕에서 간헐사가 된다고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간헐사가 된다고 하면 일단 내가 머무 집이 가장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는 한인 집을 구하게끔 좋은 정보들이 들어 있어 좋았다. 또한 뉴욕의 집값이 비싸다는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미국 간헐사를 하는 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 생각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간헐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생각했었는데 뉴욕의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 작가의 삶을 보니 미국 간헐사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